

에너지 선도도시, 영광군 이번엔 '수소'다

청정에너지로 여는 미래경제... 전남 영광 '수소특화단지' 도약

전라남도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라는 기존 위상에 '수소 경제'라는 미래산업 비전을 더 하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 자립률과 풍부한 에너지 자산을 바탕으로, 영광은 이제 '청정 수소 생산기지'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발맞춰 배후단지 조성 및 일차장출 전략, 2040년 'RE100 산업단지' 실현이라는 장기 로드맵까지 제시하며, 영광의 미래는 에너지에서 경제로 이어지는 구조 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

영광군은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의 중추다. 한빛원자력발전소 6기를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 단지, 육상 및 해상풍력 발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력 자립률은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특히 4GW 규모의 해상풍력 잠재력은 향후 수소 생산을 위한 청정에너지 공급 원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러한 안정적 전력 인프라는 수전해 방식의 그린 수소 생산에 최적화돼 있다.

이에 영광군은 정부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대응해 '청정 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까지 포함한 통합 시스템을 갖춘 '수소 배후단지' 조성이 핵심이다. 이 단지에는 수소생산시설, 충전소, 실증센터는 물론 수소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가 포함된다. 신재생에너지 기반 수전해 수소 생산은 물론, 모빌리티와 산업용 수소 수요 대응도 가능하다.

이 과정은 단순한 산업 전환을 넘어, 지역경제와 인구 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영광군은 수소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약 3천 8백 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주 여건 개선과 청년 일자리 확대는 곧 인구 유입과 지역소멸 대응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영광군은 2040년까지 RE100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장기 목표를 세웠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

영광/이현식 기자

장흥군-영암군, '그린바이오 천연물산업' 육성 맞손

그린바이오산업 6대 분야 중 천연물 육성지구 지정 도전

장흥군과 영암군이 그린바이오 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일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은 천연물 기반 바이오산업의 공동 발전과 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과 영암군은 보유했던 천연물 자원과 바이오 인프라를 바탕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우승희 영암군수를 비롯한 양 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지역은 ▲천연물 기반 그린바이오산업 공동 육성 ▲산학연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R&D) 및 기술교류 촉진 ▲천연물 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행정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장흥군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공모에 선정되는 등 천연물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암군은 천연물 원료 생산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있어, 협약을 통한 상호 보완적인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데 이어 최근 농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지정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린바이오산업 지구로 지정되면 관련 국비 인프라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기업 지원사업 가점, 부지특례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장흥군과 영암군도 이에 발맞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그린바이오산업 6대 분야중 천연물 육



성지구 지정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장흥군과 영암군이 공동으로 그린바이오산업의 밝은 미래를 여는 첫 단추로, 지자체, 대학, 연구소, 기업이 함께 만드는 실질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양 지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무협의를 구성하고 공동 사업 발굴, 국비 확보, 정책 연계방안 마련 등 향후 기업과 농업인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흥군 제공

영암군, 대표 관광지서 미식 콘텐츠 더할 창업자 모집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이달 16일까지 '관광거점 특화음식점 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월출산국립공원, 왕인박사유적지, 상대포역사공원 등 지역 주요 관광자원과 미식 콘텐츠를 연결해 영암형 관광 브랜드를 개발해 관광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내용.

영암군은 특화음식점 창업자 1명을 선발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메뉴 개발이 가능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창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선발 과정에서 특화음식점 운영 경력자, 외식 국가자격증 및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요리경연대회 수상자, 영암군민 등

이 우대된다. 사업 신청과 안내는 영암군 관광과 먹거리위생팀(061-470-2796)에서 진행한다.

영암군은 지역 대표 관광자원이 특화음식점의 특별한 맛과 만나 통합 관광 콘텐츠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육성사업을 시작으로 미식 관광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으로 사업 성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양시, 안전신문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운영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 사업장 안전 4개 유형

광양시는 가을철을 맞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전신문고에서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가을철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대상은 축제·행사, 호우·태풍, 산불·화재, 사업장 안전 4개 유형이다. 각 신고 유형은 가을철 빈발하는 사고와 최근 이슈를 고려해 선정됐다.

우·태풍, 산불·화재, 사업장 안전 4개 유형이다. 각 신고 유형은 가을철 빈발하는 사고와 최근 이슈를 고려해 선정됐다.

축제·행사 유형은 ▲인파 밀집 우려 ▲축제장 시설 파손 ▲전기시설 방치 ▲가스 안전사고를 포함한다. 호우·태풍 유형에는 ▲빗물받이 막힘 ▲옹벽·축대 붕괴 위험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낙하 ▲하천 제방 유실 등이 있다.

산불·화재 유형에는 ▲불법취사·소각 ▲담배꽂초 투기 ▲비상구 물건적치 폐쇄

▲소화시설 미정비가 포함된다. 사업장 안전 유형은 ▲안전모·안전띠 미착용 ▲낙하물 방지망 파손 ▲화학물질 관리 미흡 ▲근로환경 안전관리 미흡 등을 포괄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사이트(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가능하다. 안전신고 유형 선택 후 '가을철 집중신고'를 누르거나, 앱의 '빅메뉴'에서 집중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가을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 위험 요인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며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도시 광양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강진군, 2025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강진군이 '2025년 제1회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2일 개최하고,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생동지구 외 9개지구의 경계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는 구세희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을 비롯해 법무사 등 전문가와 사업지구별 토지

소유자 대표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강진군 군동면 생동·신리지구, 도암면 산정·강성·신덕·도암신기·향촌·장촌2·석천·월하지구 1,865필지 1,080,849.7㎡의 경계 결정에 대해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군 민원봉사과(061-430-3791-3)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은 경계 확정 후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및 등기축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구례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2차 추진

전남 구례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5년 제2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8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1차 실시하였으며, 오는 9월 8일부터 잔여물량 6대에 대해 추가로 엔진 교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구례군에 등록된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이다. 엔진교체는 부착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고 2년간 의무운행기간 내에 폐차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의무운행

후 폐차 또는 말소하는 경우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신청은 방문, 등기우편,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선착순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등 운영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해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2050 구례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한정호 기자

